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54)(8/21/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 장 내면의 삶, 1-2 절

제 2 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 1 권에서는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말, 행함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고, 그와 함께 세상의 유혹, 역경, 판단, 교제 등 외적인 삶에 관한 교훈도 담겨 있다. 제 2 권은 영적 생활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외면적인 아닌 내면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눅 17:21 -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율 2:12 -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 11:29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롬 14:17 -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시 45:13 -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요 14:23 -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율 2:12), 이 비참한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마 11:29). 외적인 일들을 멀리하고, 내면의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속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요(롬 14:17), 그 나라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그리스도께 합당한 거처가 마련되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고(시 45:13),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사람을 자주 찾아오시는데, 주님과 교제는 달콤하고, 주님의 위로는 기쁨을 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크고, 주님과 친밀함은 놀라울 정도로 깊습니다.

2. 믿는 영혼이여, 신랑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내면에 오셔서 거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요 14:23).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당신의 마음을 내어 드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계시면, 당신은 부요한 자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신실하게 당신을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이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금방 힘이 떨어지는 존재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해 있음을 의미한다. “있느니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임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임해 있음을 의미한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믿지 않던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각종 문제로 힘들어 하던 자들이 응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생각해 보게 한다. 내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만약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마음 속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지만, 자신이 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허무감을 고백하였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고 말씀하며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세상의 온갖 고난과 풍파가 닥쳐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이며, 그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나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며 내면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의 내면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주의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전으로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마치 농부가 밭의 잡초를 뽑아 내듯, 내 심령 속에 자라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잡초와 썩뿌리, 그리고 불필요한 돌덩이들을 캐내야 한다. 영성의 삶이란 평생토록 마음의 정원을 일구고, 관리하는 것이다. 정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로운 잡초들이 여기 저기 자란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잡초가 정원에 우거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꽃이나 나무들이 해를 입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스며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 미움, 오해, 불신, 착각, 유혹, 잘못된 정보, 교만 등등 최악된 세속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 내면 속에 스며드는 것이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 영의 역사로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나의 죄악과 문제를 회개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늘 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는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내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외적인 삶이 바뀔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새롭게 해 달라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2. 여전히 영적인 잡초들로 무성한 우리의 내면이 오늘도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3. 세계 각지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